

루브르 만화 컬렉션 다섯번째 권

**키시베 로한,
루브르에 가다**

아라키 히로히코 / 서현아 옮김

루브르에 숨겨진
수수께끼의 그림을
찾아나선 로한,
그는 과연 그림에 서린
저주를 풀 수 있을까

신인 만화전에 응모할 작품을 그리기
위해 외할머니 댁에 머무르던 로한은
그 집에 세들어 온 의문의 여인
후지쿠라 나나세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로한에게 고향 마을의 지주가
루브르 박물관에 넘긴 '세상에서 가장
검고 사악한 그림' (월하(月下))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세월이 흘러 우연히 그 그림 이야기를
떠올린 로한은 루브르 소장품이라는
단서만으로 파리로 떠난다. 이미 오래

전에 폐쇄된 Z-13 지하창고에 있는
그림을 찾아 나선 로한과 일행,
그들은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장의
그림을 발견하는데...

루브르라면,
저주받은 그림 같은 것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루브르는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그릴 포인트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뭔가 수상쩍은 것이
있을 법한 지하공간이 좋겠다는
생각에, 취재할 때는 지하와 지붕
밑을 중심으로 둘러봤다. 드러나지
않은 소장품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보관되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림이란,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복원 중이라서 공개할 수 없더라도
훌륭한 작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품에 등장하는 '검은 그림' 같은
것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했다."
—아라키 히로히코

아라키 히로히코(荒木飛呂彦)는
1960년 일본 미야기현에서 태어나
1980년 슈에이사(集英社)의 『주간
소년 점프』에 「무장 포커
(武装ポーカー)」라는 작품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그 후 「마소년
비티(魔少年ピーティー)」, 「바오
내방자(バオ―来訪者)」 등 개성적인
작품을 발표했고, 1987년부터
『조조의 기묘한 모험
(ジョジョの奇妙な冒険)』 시리즈를
시작, 2012년 2월 현재까지 8부작
총 104권을 출간했다. 2003년
파리에서 첫 개인전 「파리에 간
조조(JOJO IN PARIS)」를 갖기도
했으며, 만화 외에도 삽화, 패션
일러스트, 영화 평론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만화계가 주목한,
실험적 작가들이 펼치는 루브르 상상기행**



빙하시대 Période glaciaire
니콜라 드 크레시 / 김세리 옮김
A4 / 양장 / 80면 / 17,000원

어느 박물관의 지하 Le Sous-sols du révolu
마크-앙투안 마티외 / 김세리 옮김
B4 변형 / 양장 / 62면 / 16,000원

미지의 시간 속으로 Aux heures impaires
에릭 리베르주 / 정연복 옮김
B4 변형 / 양장 / 78면 / 18,000원

루브르의 하늘 Aux heures impaires
베르나르 이슬레르 · 장-클로드 카리에르 / 정연복 옮김
B4 변형 / 양장 / 80면 / 20,000원

키시베 로한, 루브르에 가다
岸辺露伴, ル・ヴルへ行く
아라키 히로히코 / 서현아 옮김
A4 변형 / 양장 / 132면 / 23,000원

열화당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520-10 파주출판도시 전화 (031)955-7000, 팩시밀리 (031)955-7010
www.youlhwadang.co.kr yhdp@youlhwada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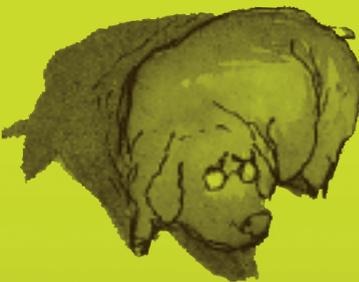


만화, 루브르를 꿈꾸다

루브르와 만화의 만남, 그 유쾌한 상상력
'루브르 만화 컬렉션' 다섯번째 권 출간

**루브르와 뫼뫼로폴리스,
그리고 열화당이 함께 선보이는
'루브르 만화 컬렉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전미술의 보고로 알려진 루브르 박물관.
이 루브르가 가장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시각매체인 만화로
새롭게 그려진다. 루브르 박물관과 프랑스의 만화전문출판사
뫼뫼로폴리스의 기획으로 열화당에서 선보이는
'루브르 만화 컬렉션'은, 기발한 상상력, 독특한 이야기 전개,
개성 넘치는 그림으로 지금껏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루브르를 보여 준다. 이 만화들은,
만화 장르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유쾌하게 자극할 것이다.



어느 날 얼어붙은 공간으로부터 솟아오른, 표류하던 빙산과도 같은 풍요롭게 장식된 하나의 거대한 건물이 탐험대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우연히 발견한 동전을 통해 사라진 대륙의 이름이 ‘유로(euro)’라 믿게 되고, 이렇게 그들의 아슬아슬한 루브르 탐험이 시작되는데….



루브르 만화 컬렉션 첫번째 권

빙하시대

니콜라 드 크레시 / 김세리 옮김

모든 것이 얼어붙은 미래에 단절된 과거의 문명을 찾아나선 탐사대, 그들이 벌이는 루브르 소장품들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상상력과 해독

천재지변으로 쫓겨 얼어붙은 미래의 대륙에는 과거의 역사나 문화를 가늠할 만한 어떤 지표도 남아 있지 않다. 이 사라져 버린, 신화와도 같은 문명의 흔적을 찾아 한 탐험대가 끝없는 눈보라와 얼어붙은 별판을 달린다. 여기엔 연구원을 맡고도 ‘고고학적인’ 후각을 지닌 미래형 개들이 있다. 물론, 이 개들은 우리들처럼 말을 하며, 안경도 쓰고, 스키를 탈 줄도 안다.

인류의 문명에 무지한 미래인들이 루브르를 만난다면?

“루브르를 주제로 한 만화를 그려 달라고 제안받았을 때, 나는 루브르 같은 기관이 만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데에 놀랐다. …『빙하시대』의 출발점은 루브르를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에 기인한다. 많은 지식과 독서에도 불구하고, 전시된 무수한 컬렉션을 앞에서 나는 전적으로 무지함을 느꼈다. 그래서 수천 년 이후에 루브르를 발견하게 될, 나보다도 더 무지한 사람들을 창조해 보기로 했다.”
—니콜라 드 크레시

니콜라 드 크레시(Nicolas de Crécy)는 1966년 리옹에서 태어나 앙굴렘 에콜 데 보자르에서 학위를 받았다. 현재 만화 삽화가이자 만화 시나리오 작가,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폴리가토 (Foligatto)』(1991), 『비벳똥 셀레스트(Bibendum céleste)』(1994), 『살바토레(Salvatore)』(2005) 등의 단행본과, 동료 실뱅 쇼메와 함께 만든 <늪은 노파와 비둘기 (La ville dame et les pigeons)>(1998), <벨빌의 세 할머니들(Les triplettes de Belleville)>(2003) 등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루브르 만화 컬렉션 두번째 권

어느 박물관의 지하

마르크-앙투안 마티외 / 김세리 옮김

미래의 어느 날, 한 박물관의 심장부로 들어간 어느 측량사의 일기

수량화할 수 없는 것을 수량화해야 할 임무를 맡은 르 볼뤼외르와 그의 조수 레오나르.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박물관의 배후를 측량하러 간다. 그러나 과연 이것을 측량하기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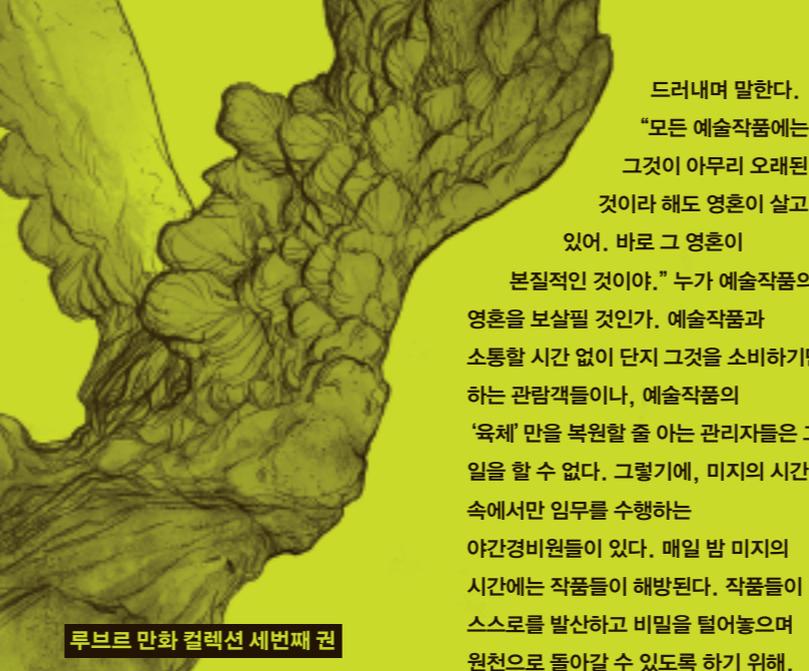
가능한가. 만화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상상 속 루브르의 지하에서, 이 박물관이 그 자체로 존재이유인 또 하나의 세계임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마티외는, 그곳에 걸린 작품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보다, 박물관 자체를 거대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다루고 싶어한다. 주조실로부터 틀을 짜는 아틀리에로, 복제실에서 걸작을 모아 둔 방에 이르기까지, 긴장감 넘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불가사의한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보다 함축적인 루브르, 그 보편성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나는 보다 함축적인 루브르 박물관을 바랐다. …어떤 의미에서 그곳은 보여질 수가 없다! …그곳에는 무한함이 도사리고 있다! 내가 ‘물리적인’

루브르를 다루지 않고 ‘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런 보편성이다.”
—마르크-앙투안 마티외

마르크-앙투안 마티외(Marc-antoine Mathieu)는 1959년 앙제에서 태어나, 앙제의 보자르에서 수학한 후 전시와 관련한 무대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그래픽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주요 작품으로 『파리-마콩(Paris-Mâcon)』(1987), 『기원(L’origine)』(1990), 『줄리우스 코랑탱 아크파쿠(Julius Corentin Acquefacques)』(1990–2004, 전5권), 『그림자들의 마음(Le Coeur des ombres)』(1998), 『데생(Le Dessin)』(2001) 등이 있다.



루브르 만화 컬렉션 세번째 권

미지의 시간 속으로

에릭 리베르주 / 정연복 옮김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 루브르, 모든 것이 잠든 미지의 시간에 작품들의 영혼이 깨어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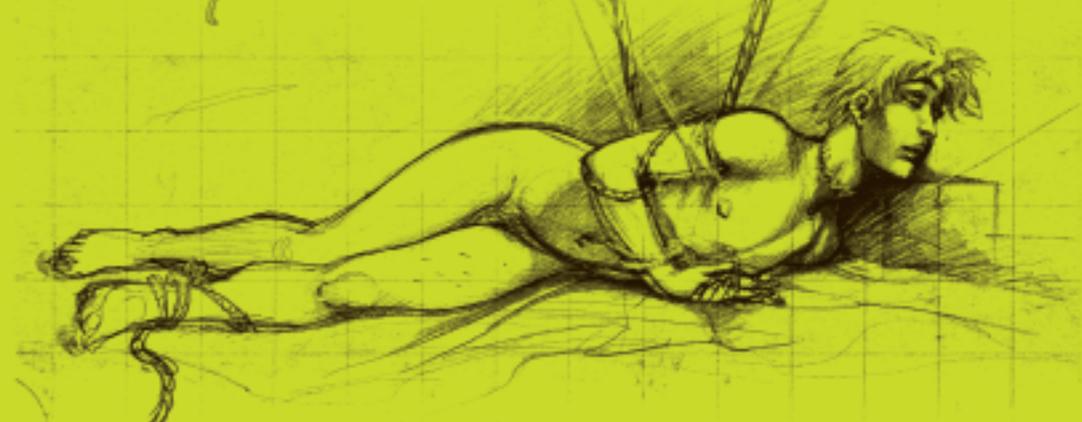
졸업을 위해 견습차 루브르에 온 청각장애인 바스티앵은 면접을 기다리던 중 루브르의 야간경비원이자 그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인인 신비로운 인물, 퀴지아를 만난다. 박물관에서 며칠 밤을 함께 보낸 어느 날, 퀴지아는 바스티앵에게 자신의 임무의 정체를

드러내며 말한다. “모든 예술작품에는,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해도 영혼이 살고 있어. 바로 그 영혼이 본질적인 것이야.” 누가 예술작품의 영혼을 보살필 것인가. 예술작품과 소통할 시간 없이 단지 그것을 소비하기만 하는 관람객들이나, 예술작품의 ‘육체’만을 복원할 줄 아는 관리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에, 미지의 시간 속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는 야간경비원들이 있다. 매일 밤 미지의 시간에는 작품들이 해방된다. 작품들이 스스로를 발산하고 비밀을 털어놓으며 원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휴식의 시간이 끝나는 새벽이 오면 어떤 흔적도 없이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에릭 리베르주(Éric Liberge)는 1965년생으로 주로 만화동호인 잡지를 통해 활동했으며, 판타지 애호가들에게 인기있는 작가다. 주요작품으로 『마지막 마르뒤 (Le dernier Marduk)』(2000), 『성난 천둥(Tonnerre rampant)』(2002), 『금속(Métal)』(2003), 『마르디-그라 데상드르 씨(Monsieur Mardi-Gras Descendres)』(컬러판, 2004) 등이 있다.

화해 불가능한 두 시선의 만남

“수차례 루브르를 방문하고서야 나는 나를 전시공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 바로 관람객의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과 교류를 맺고, 그리하여 혼자가 될 필요가 있다. … 나는 이 두 세계, 조금은 난폭한 청각장애인과 순수예술을 만나게 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언뜻 보서는 화해 불가능한 두 시선이 결국엔 만나고 하나로 뒤섞이게 될 것이다.”
—에릭 리베르주



루브르 만화 컬렉션 네번째 권

루브르의 하늘

베르나르 이슬레르, 장-클로드 카리에르 / 정연복 옮김

혁명과 예술 사이에서 고뇌하는 다비드의 불가능한 도전

프랑스 혁명기, 로베스피에르는 열혈 자코뱅 당원이었던 화가 다비드에게 혁명 정신, 즉 ‘최고 존재(’Être suprême)’의 초상화를 그려 줄 것을 주문한다. 혁명세력이 극복하고자 했던 기독교적 신은 아니면서 공화국을 이끌어 갈 이상을 이미지화하는, 로베스피에르의 집념어린 이 작업은, 다비드에게는 결코 표현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임무가 된다. 그리고 ‘최고 존재’ 로서의 공화국 정신을 구현하려는 로베스피에르의 강박관념은 자신을 더욱 단호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 피의 향연은 그칠 줄을 모른다. 그런 그들 주변을 맴돌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쥘 스텐이라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한 소년이 나타난다. 다비드는 쥘 스텐을 모델로 ‘최고 존재’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하는데….

루브르 박물관의 탄생은 정치적인 사실이다

“‘루브르’라는 곳은 박물관이기 전에 화가들이 살면서 그림을 그리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루브르 박물관의 탄생’은 지극히 정치적인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한쪽에는 혁명가들의 사상을 대변해 주는 박물관이 있었고, 그 내부에서는 혁명적 사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베르나르 이슬레르

베르나르 이슬레르(Bernar Yslaire)는 1957년생으로 열여덟 살 때부터 『르 주르날 드 스피루(Le Journal de Spirou)』와 함께 일하며 다양한 삽화와 시리즈물을 그렸다. 주요 작품으로 『스무번째 하늘의 기억(Mémoires du XXe Ciel)』(1998), 『브뤼셀의 하늘(Le ciel au-dessus de Bruxelles)』(2006) 등이 있다.

장-클로드 카리에르(Jean-Claude Carrière)는 1931년생으로 작가이자 연극인이다. 첫 소설 『도마뱀 (Lézard)』(1957) 발표 후, 피에르 에텍스, 자크 타티와 함께 많은 영화작업을 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시라노 드 베르주락 (Cyrano de Bergerac)』과 『프라하의 봄(Le printemps de Prague)』이 있다.